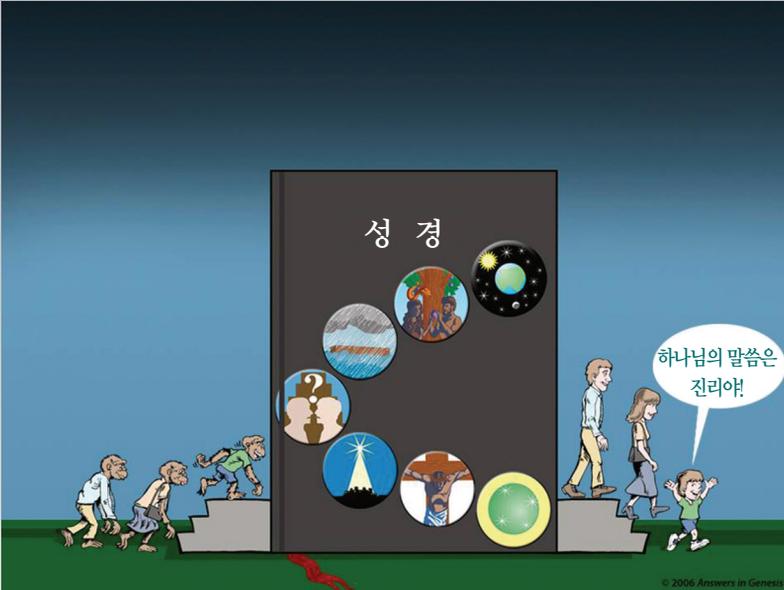


CREATION TRUTH



이제 참여할 때입니다!

〈이미 떠나버렸다〉 지난 해 4 회에 걸쳐 연재했던 책 제목입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어 있고, 거짓인 진화론에 근거한 의심에 찬 질문들은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의미가 없어져가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졌고,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이제 세계 최고의 크리스천 국가였던 미국에서도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2세대들도 이미 교회 밖에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교회의 생존에 대한 근거들은 이번 호에 함께 실린 “일본을 통해 드러난 사탄의 전략”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생존의 문제를 쥐고 있는 공격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진화론

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 되었지만 진화론은 첫 아담을 제거함으로써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손쉽게 제거해 버립니다. 또 진화론은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수억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죽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관계를 끊어버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없애 버립니다. 더구나 진화론의 주체가 진화이듯 창조 사실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진화를 믿으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경적 혹은 신학적, 혹은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화를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설(hypothesis)의 참과 거짓이 판명되는 과학적 가설(scientific hypothesis)도 아닌 가설일 뿐입니다. 더욱이 진화는 어떤 증거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많은 진화론자들마저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무신론적인 과학 철학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거짓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진화론이 박멸될 때까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릴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망설이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후원자(지난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보여 주신 헌신과 사랑은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실이 그곳에 더 널리 퍼지도록 끌어당겨 주시고, 창조 사실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밀어 주십시오! 함께 주님을 감격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의 사역들은 1) 일회성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외의 많은 교회나 집회들에서 3~4 회씩 연이어 초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2)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3일 혹은 4일

세미나 및 학교



뉴스레터



자료 보급

탐사여행

간 진행 되는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교육이 진행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3) **창조과학 학교**는 개 교회를 중심으로 10회 2시간씩의 강연으로 구성 되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는 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서부지역에서는 15회, 중부지역에서는 9회 개최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인 4) 기독교 대학의 강연, 5) 방송을 통한 사역, 6) 문서와 자료 판매와 7) 뉴스레터 Creation Truth를 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현재 저희 사역자들 대부분이 50 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일꾼들이 너무 늦지 않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여름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에 처음으로 3 개월 동안 와 있었던 대학생 인턴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인턴 학생이 느낀 내용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저의 내면 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질문이 존재했습니다. 언제나 “IF” 라는 가정문이 저의 근본적인 믿음에 따라다녔습니다. ...단 기간의 강의로만 끝나지 않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인턴십의 장점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은혜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단 하나의 standard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 당하는지를 보는 은혜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은 분명 저에게 은혜입니다. ...3개월의 창조과학선교회 인턴으로 있는 기간 동안 제 안에 부여졌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를 성경을 수호하고 그분이 주신 절대 단 하나인 standard(성경)를 사실이라고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손 쓰지 않으면 내 자녀가 쓰러지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쇠락해 가는 미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내 주십시오. 사용 가능한 정보와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학교나 세미나 초청도 많이 이루어지도록 힘 써 주십시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투자 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교회나 기관에서 인턴들을 보내 주십시오. 책이나 비디오 등도 구입하셔서 교회에 기증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대한 부담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손수 행하실 2010 년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후10:4b~5)

일본을 통해 드러난 사탄의 전략



지난 11월 6일 일본 오사카에서 Love Creation을 인도했습니다. 지난 8월에 동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6시간에 걸쳐 세 가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약 300명이 모였는데 이는 지난 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1%밖에(재일 한국인을 제외하면 순수한 일본인은 0.5%라고도 말할) 되지 않는 일본에서 초교회적 세미나 행사로 이만큼 모인 것은 거의 기록적인데 그만큼 창조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방문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행사 전날 일본 우사미 미노르의 세미나에서였습니다. 우사미 미노르는 일본 창조과학을 설립했던 우사미 마사미의 아들이며 현재 일본 창조과학회 회장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50년간 사단이 '진화'라는 허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일본은 천주교뿐만 아니라(1549년), 개신교 역시 한국보다 25년이나 앞서 전래되었습니다. 일본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전래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던 1859년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개신교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당시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소학교 교과서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창조,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그러나 일본은 1868부터 근대화를 추진하는 메이지유신과 함께 유럽으로부터 1874년에 진화론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877년부터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로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진화론을 교육시키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당시 진화론의 등장으로 유럽교회가 몹살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인들도 개신교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진화론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교회는 바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복음전파



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사미 미노르는 이 진화론 교육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제국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히틀러도 철저한 진화론자이며 사람과 동물의 목숨을 동일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진화론의 생존경쟁 원리를 국가간의 원리로 적용시키려 했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 대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세계대전 패망 이후 수많은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했지만 번번히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일본은 진화의 개념이 머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의 일본 기독교인들은 이미 받은 진화론 교육으로 인해 진화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변형시킨 유신론적 진화론을 택했는데 이는 복음전파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여야 가치 있을 성경이 첫 페이지부터 허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신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창세기를 사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해방 전까지 진화론 교육에서 보호 받아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아직까지 진화론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미국교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교적 진화론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30년 이전까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1900년을 맞기 전에 이미 진화론으로 세뇌된 유럽보다, 미국이 크리스천 정신을 최근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한국에게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과 기독교와의 상관관계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진화는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받아들이면 진리는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유럽과 일본을 통해 사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지금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진화’라는 거짓을 통해 얼마나 교회를 휘방하고 약화시켰는지 그 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아닌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위기에서 그냥 방관하다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지... 분명한 현실 하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진화가 사실이라고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세미나 다음 날 Love Creation 관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우리는 중요한 의견의 일치점을 보았습니다. “진화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일본선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를 우회해서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 4:6)

앞의 세대 때문에 지금 세대가 있듯이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지식을 말함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운석이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가장 대표적이면서 근래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운석공은 바로 중생대를 마감하고 신생대를 열었던 칩술롭 운석공이다. 이 운석으로 인해 K-T(중생대-신생대) 경계 멸종이라 부르는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고, 지구는 파충류가 지배하던 중생대를 마감하고 포유류가 지배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 즉 신생대를 맞게 되었다.”¹

위 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창조 사실과 그 이후 수천년의 역사를 거부하고,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짧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드려 수백억년의 우주 나이와 수십억년의 지구 나이를 사실로 주장하는 한 크리스천 과학자가 쓴 글 일부이다. 그런데 최근 그 저자가 그렇게 의지하는 전문 과학자들의 조사가 지질 학회지에 발표 되었는데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May 2009; v. 166; no. 3; p. 393-411) 위에 기술한 주장을 180도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생대-중생대-신생대라는 지질 시대는 진화론으로 만든 것이지 발견된 것이 아니다. 화석을 기준으로 진화론에 맞추어 배열을 했는데 큰 문제는 그 화석들이 그런 순서대로 발견된 것이 아니었고, 그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중-신생대의 지질계통표는 조작된 것이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Shreeve 박사는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 뼈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²라고 탄식 했다. 화석의 나이를 학자들

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말이다. 고-중-신생대의 지질계통표는 그렇게 조작된 것이다.

두 번째는, K-T 경계 멸종에 관한 것인데 지질계통표를 보면 각 지질시대마다 멸종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거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그 생명체들은 그 자리에 수천만년, 수백만년 동안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상하게도 현재 그 생명체들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상한 생물들을 그 사람들은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 신비라고 말한다. 진화론으로 바라 본 이런 이상 야릇한 현상들은 성경에 기록 된, 노아홍수를 통해 바라 보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되는 간단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질학회지의 보고는, 중생대를 마감하게 했다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칩술롭 운석이 떨어지기 전 지층과 그 이후 지층에서 생명체들의 종(species)이 어떤 변화를 보여 주는지 관찰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를 믿는 창조론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운석 충돌 전후(K-T 경계) 지층에서 동일하게 총 52종의 화석들이 발견 되었다! 이 운석은 한 생명체의 멸종도 이끌어내지 않았다. 중생대를 끝낸 것이 사실이라고 확언한 말이 거짓임이 믿었던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 되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는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것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고전1:25),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하여(시12:6)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계 22:19; 잠 30:6) 완전함을 믿고 말씀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는
올 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ACT News

탐사여행 |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일본 Love Creation

이재만 부회장은 11월 6일 오사카에서 Love Creation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300여명이 참석하는 큰 관심을 보였으며, 내년 4월과 7월에 각각 동경과 고베에서 다음 일정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년 9월에 일본 본토에서 참석하는 8일간의 탐사여행도 결정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이 일본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한 내용은 '일본을 통한 사탄의 전략'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Love Creation에 이어 오사카 제자교회와 고베 동부교회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일본 Love Creation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방문 동안 한국도 역시 교회와 대학 캠퍼스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젊은 세대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진화론으로 젊은 세대를 빼앗기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독산동교회, SBS 방송교 신우회, 금단제, 본교회, 종교교회, 분당샘물교회, High Family, 대구 범어교회, 구로 베다니교회, 안양 한사랑교회,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VFC, 수원 하나교회 등과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창조과학 학교 종강

대흥장로교회(담임목사: 권영국)에서 진행 된 제 15기 서부 창조과학학교(9월 9일- 11월 11일)와 삼버그 침례교회(담임목사: 김광섭)에서 진행 되었던 중부 창조과학학교(9월 14일 - 11월 16일)가 일제히 종강을 하였습니다.

대흥장로교회에서는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 되었는데 23명이 수료 하였고 중부 창조과학학교에서는 8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니 가슴이 벅칩니다.

제 16기 서부지역 창조과학학교는 2010년 1월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 9기 수료식



중 예정이며, 제10기 중부 창조과학학교는 2010년 부활절 후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창조과학학교는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년에는 많은 교회에서 창조과학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교사와 청년들을 위한 학교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여름 한 회를 건너 뛴 제 7차 유학생 탐사여행(2010년 1월 4-6일)은 신청자가 쇠도하여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 있습니다. 이번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후원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계속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에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과 저희 선교회에서 인재양성 차원으로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한 지질학 전공 참가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된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포함 일체의 경비를 저희 선교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초청이 계속 이어져 진화론을 물리칠 인재들이 육성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유학생 탐사여행 프로그램과 후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교회나 개인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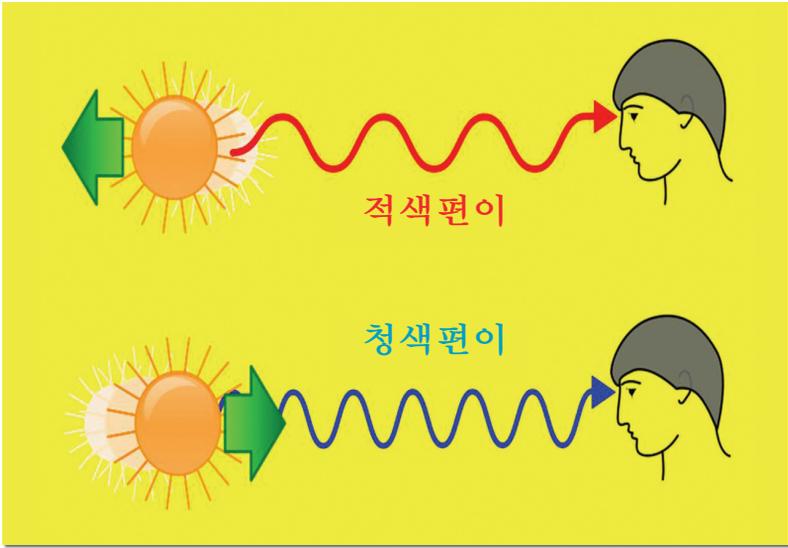
서부지역 15기 창조과학학교 실습(샌디에고 토리파인 비치)

창조과학 세미나/탐사여행 일정

세미나, 탐사여행, 창조과학 학교 등의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은 지난 해 보다 훨씬 많은 사역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 질 것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혹은 탐사여행을 신청하시기 원하시거나 후원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웹 페이지 www.HisArk.com의 “사역 일정”을 참고 하시고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호 Creation Truth 9면의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4 번째 문단 8 줄(“예를 들면 빅뱅, 6일 창조, 생명의 창조, 사람의 창조, 전지구적인 홍수 등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 했다고 여기는 질문들이다.”)은 빅뱅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빅뱅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과학법칙이나 증거에 의해서도 지지 받지 못하는 이론임을 밝혀 둡니다.



적색편이는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가?

적색편이(Red Shift)는 빛의 파장이 정상의 파장 보다 더 길어짐을 뜻한다.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먼 별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적색편이(Red Shift)라 하고 이와 반대로 파장이 줄어들면 청색편이(Blue Shift)라 한다. 일반적으로 별빛을 관찰할 때 그 별빛을 보고 적색편이라거나 청색편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는 빛의 색은 그 별의 온도를 나타내며 적색편이나 청색편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적색편이 값을 계산하려고 별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통해 무지개 색으로 분리하고 분광특성이 얼마나 적색으로 치우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오늘날 이 적색편이의 원인은 다음의 세가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속도이다. 만일 별들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 별빛의 빔은 도플러효과(관측자로부터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기 때문에 파장이 변하는 현상: 그림참조) 때문에 파장이 늘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는 은하 내부에 있는 별들은 관측자에 대하여 그들의 속도 때문에 적색편이가 된다. 한편 관측자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별빛은 이와 반대로 청색편이를 나타낼 수 있다.

두번째 이유는 중력이다. 강한 중력을 가지는 별에서 나오는 빛은 그 중력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데 따라서 별빛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것이 적색편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매우 거대한 중력장을 가지는 백색왜성인 시리우스(Sirius B)에서 오는 별빛은 이런 이유로 적색편이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세번째 적색편이의 이유는 공간의 팽창 때문이다. 우주 내에 이동하는 빛은 우주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그 파장이 늘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별들로부터 오고 있는 별빛은 인접한 별빛 보다 더 큰 적색편이를 나타낸다. 먼 은하들이 인근의 은하들 보다 훨씬 더 큰 적색편이를 보이는 이유는 원거리의 은하들이 우주의 끝에서 공간의 팽창을 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주장은 1920년 허블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이 현상은 흥미롭게도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이사야40:22절을 비롯해 적어도 17회 이상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가 하늘을 차일(curtain) 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 같이 베풀셨고(사40:22b)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사 4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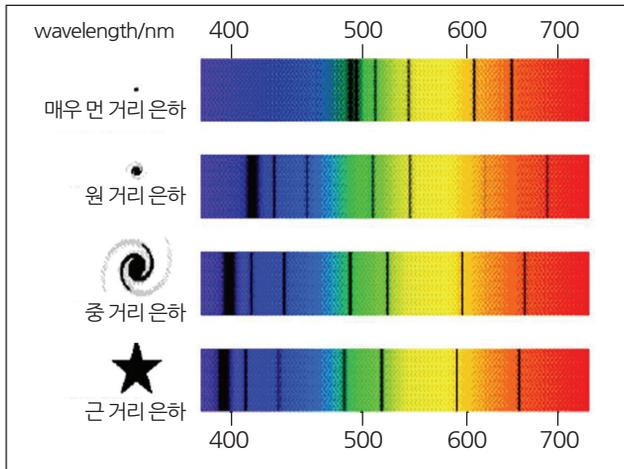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렘10:12)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

기 때문이라기 보다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편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적색편이 현상은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폭발(빅뱅) 이론을 지지해주는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이 적색편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온 과학자(William Tifft, W. J. Cocke, W. Napier, B. Guthrie 등)들은 실제로 측정된 적색편이 값들을 통해서 은하계의 분포가 매우 불연속적임을 확인해 왔다. 이 사실

은 대폭발(빅뱅)로 이루어진 균일한 우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료가 된다. 결론적으로 적색편이 데이터들은 자연주의자들의 빅뱅가설을 부정하며 오히려 성경 말씀을 지지해 주고 있는 과학적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사람:

꼬리없는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가?(1)

루시는 상상-
갈색 부분만
발견 됨



다윈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크리스천들이 삼키기 가장 어려운 쓴 약은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일 것이다.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비판 없이 받아 드리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인류의 기원, 적어도 자기 영혼은, 짐승들의 영혼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노력한다.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꼬리없는원숭이(ape)에서 진화

한 것이 아니라 꼬리없는원숭이 같은(apelike)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강성 주장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원숭이 닮은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은 꼬리없는원숭이(ape)였으며 피테쿠스(pithecus, 그리스어로 “꼬리없는원숭이 ape” 이란 단어에서 유래) 같은 학명들(scientific names)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조상이라고 극구 주장되고 있는 “루시(Lucy)”라는 것은 학명으로 Australopithecus afarensis(에디오피아의 Afar 삼각지에서 온 남쪽 원숭이 ape란 의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말하며, 진화론자들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적 증거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적인 출발

하나님은 땅 위에 걸어 다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바로 그 날(제 6일)에 자가 만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의도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창세기 1:26-28). 이 말은 인간과 동등한 어떤 동물도 없으며 어떤 것도 인간의 조상이 아니란 것이 분명하다.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동물들을 지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 (창세기 2:20)을 보았다. 예수님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라고 하셨다(마가복음 10:6).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간에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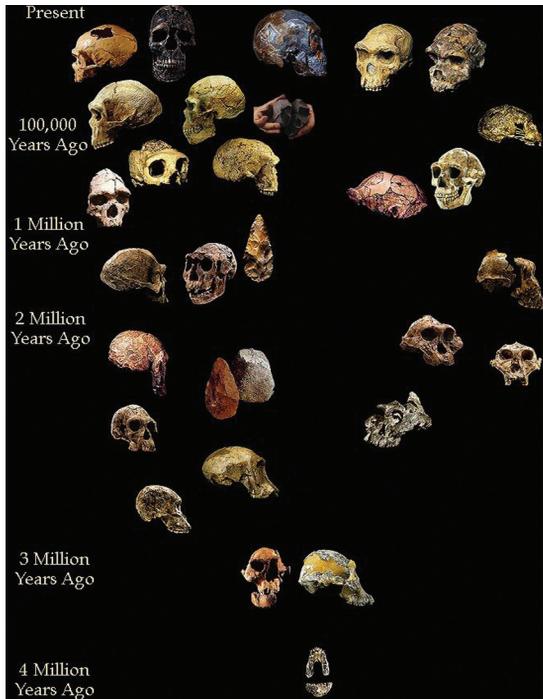
어야 한다고 선언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독특성을 확인하셨다. 이것은 인류 이전의 사람이 나 인류가 지상에 나타나기까지 수십억 년의 우주적인 진화가 들어 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아담은 곧바로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하와”를 선택했는데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창세기 3:20)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인류는 동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린도전서 15:39).

진화론적인 출발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인류의 조상은 완전한 사람 아담과 하와이지만 거슬러 올라간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반해, 진화론자들은 인류는 실제로 원숭이들로부터 진화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인류 기원을 알기 위해 화석 증거를 연구하는 어떤 고생물학자들도 감히 “인류가 꼬리없는원숭이로부터 진화했습니까?” 라는 (진화를 부정하는 듯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허용된 질문은 “어떤 꼬리없는원숭이로부터 인류가 진화했는가?” 일 뿐이다.

진화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어떤 현존하는 꼬리없는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꼬리없는원숭이 화석들을 찾고 있다. 특히 그들은 해부학적 특징이 인류와 꼬리없는원숭이의 중간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찾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진 꼬리없는원숭이 화석을 인류의 선조라고 하거나 적어도 방계 조상이라고 발표하고 원인(hominids, 原人)들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현존하는 꼬리없는원숭이는 원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람과(hominoids, 猿人)에 속하는 동물들이라 하는데 그들은 사람과 닮았을 뿐 사람으로 진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멸종한 꼬리없는원숭이 화석 뼈들과 살아있는 사람 뼈들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원숭이 조상을 가졌다는 증거로 기꺼이 받아드리고 있다.

인류의 진화 계통표 - 진화론에 근거한 배열



저자: 데이빗 멘튼(David Menton)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일본인 탐사여행- 빙하시대 09/28/09~09/30/09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진화론적인 사상에 더욱 물들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인에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진화론 때문입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은 진화론에 세뇌되어 있는 이런 일본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0 년에도 9월 18-20일에 일본인을 위한 탐사여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 28-30일에 진행 된 일본인들의 빙하시대 탐사여행 후에 적은 소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말씀이 현실세계인 우리들 눈 앞의 자연계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지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세토 노부코

요세미티에 한 번 와보고 싶었는데 탐사여행으로 처음 오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마구치 요시아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주 잘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와 겐쇼

지금까지 모호했던 창세기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열정이 저에게까지 뜨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카와 카오리

오랜만의 요세미티 여행에 이는 얼굴들과도 만나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로미요 노리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델 토시코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처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가 보는 요세미티 여행이라 단순히 여행가는 기분으로 참가했습니다만 노아와 욥의 이야기 그리고 창조론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시이 미나

3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풍경을 보아도 이해하고 수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배워서 좋았습니다. -스즈키 유미

두 번째의 요세미티 여행인데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강연도 아주 알기 쉬웠고 구체적으로 지질학을 배워서 참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크리스천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왔으면 합니다. -이가라시 메구미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진화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배우게 된 것 감사합니다. -무명

이번 여행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강의도 무척 알기 쉬웠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손에 잡힐 정도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치다 요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작년의 그랜드 캐년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동물이 아닌 영광스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그런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배웠습니다. 요세미티를 볼 때마다 이번 여행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카요시 히로미

이제만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3일간의 여행을 함께한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진화론이야 말로 어른 들의 옛날 이야기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류키미코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사랑 가득한 보살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강의와 설명,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노아의 홍수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한 운전과 식사, 버스 안에서의 병물 등 정성어린 보살핌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사토 히사에

일본어 번역: 김우실

사역일정 Schedule

2010년 ACT Schedule

- 1/4-6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1/4-1/15 윌드미션대학교 강의 (최우성, 323-823-4629), L.A, CA
1/22-24 로체스터온누리교회 (이재만), NY
1/31 산타마리아 믿음 장로교회 (이재만), CA
- 2/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제자회 목회자, 본국)
2/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회 목회자, 801-644-3356)
2/26-28 빙햄튼 한인침례교회(이재만), NY
- 3/5-7 토론토 부활의 교회 (이재만), Canada
3/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만나 선교회, 213-381-1390)
3/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가주 가주 노회 국제총회, 213-381-1390)
- 4/5-8 동경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4/10 요도바시 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4/11 야마기타 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4/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Youth EM, 213-381-1390)
- 5/21-23 창조과학 탐사여행 (홀러튼 장로교회, 213-381-1390)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 6/10-1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6/24-26 빙하시대 탐사여행 (사랑의 빛 선교교회, 213-381-1390)
- 7/5-10 고베 Love Sonata (이재만), 일본
7/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7/22-24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GM, 213-446-2821)
- 9/4-6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9/18-24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인, 213-381-1390)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